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2.(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12.(목) 12:00 (지 면)2026. 11. 13.(금) 조간

4.16의 기록, 오늘의 교육이 되다

- 교육부, '단원고 4.16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 등재를 기념해 11월 13일(금)「4.16아카이브 심포지엄」개최
- 국내외 전문가들과 '단원고 4.16기록물'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고 교육적 활용 방향 논의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1월 13일(금) 유네스코회관(서울)에서 '단원고 4.16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 등재를 기념하며「4.16기록물 토론회」(「4.16아카이브 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원고 4.16기록물'의 가치를 되새기며 재난 관련 기록물의 사회적 의미를 살피고, 이에 대한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4.16기억저장소 소장, 교사, 기록물 작성 및 등재 심의에 참여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개회사와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지성 4.16기억저장소 소장이 '단원고 4.16기록물'의 기록 과정과 의미를 조명하는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첫 번째 발표에서는 ▲4.16구술 기록 과정과 기록물의 가치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 등재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4.16기록물의 교육적·사회적 의미 ▲미래교육과 4.16을 주제로 재난 기록의 교육적·사회적 의미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와 전문가가 함께 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재난 기록의 의미와 재난 이후 사회적 회복을 위한 실천 과제를 논의한다.

【 4.16기록물 토론회 세부 일정 】

시간	주요내용
13:00-14:00 (60')	**[등록]** 등록 및 사전 전시
14:00-14:20 (20')	**[개회식]** 개회 선언 • 개회사: 교육부장관 최교진 • 인사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홍현익
14:30-14:55 (25')	**[기조발제]** 4.16기록물의 의미
14:55-15:35 (40')	**[발표1]**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 등재 과정과 의미
15:50-16:30 (40')	**[발표2]** 4.16기록물의 교육적·사회적 의미
16:40-17:40 (6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재난 기록의 의미와 사회적 회복
17:40-17:50 (10')	**[폐회]** 폐회 선언

'단원고 4.16기록물'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을 정리한 총 235,220점의 기록이다. 해당 기록물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1차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에서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으로 5일 최종 등재되었다.

* 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최교진 교육부 장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은 "'단원고 4.16기록물'에는 희생된 학생들의 일상과 학교생활, 국민의 추모와 연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며, "소중한 기록이 미래 세대의 배움으로 이어지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4.16아카이브 심포지엄 포스터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담당 기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조정실	책임자 담당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체불가 대한민국

참 고 | **4.16아카이브 심포지엄 포스터**

